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육성정책 방향

가

2008년 정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광역화 추세에 맞추어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도입하여,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선도산업 육성,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 양성 및 30대 선도 SOC 사업¹⁾을 추진 중에 있다.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1단계 사업('09 ~ '11, 이하 1단계 사업)을 통해 광역규모의 산업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신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LED 등 신성장동력의 산업생태계가 비수도권 지역에 형성되는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1단계 사업에서는 12개 선도산업·20개 프로젝트에 703개 기업 등 1,10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3년간 매출 8조 8천억원(수출 55억불 포함) 및 고용창출 17,600명을 목표로 총 7,6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광역경제권별로 고용, 매출, 수출 등에서 사업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 광역경제권별 매출 및 수출 성과

디스플레이, 제약 바이오, 태양광 셀 등에서 2조 1,725억원의 매출, 14.4억불 수출
태양광 부품, 풍력, 광부품 소재 등에서 1조 2,733억원의 매출, 4.3억불 수출
그린카 핵심부품, 해양플랜트 등에서 1조 7,882억원의 매출, 7.7억불 수출
수소연료전지, 로봇, 의료기기 등에서 1조 1,108억원의 매출, 3.4억불 수출
의료융합, 의료관광 등에서 2,461억원의 매출, 0.8억불 수출
물산업, 관광레저 등에서 6,512억원의 매출, 1.9억불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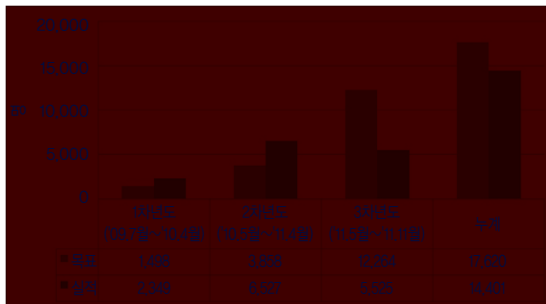
1)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 공동)를 신설하고, 선도산업 육성(지경부), 인재양성(교과부), 30대 선도 SOC 사업(국토부)으로 역할분담



조현운

지식경제부 차관산업과 사무관
jo.hyunwoon@kma.go.kr

▶ 선도산업의 고용효과



'11년 12월말 현재, R&D 석·박사인력 및 20~30대 청년 인력을 총 14,401명²⁾의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태양전지, 그린카 핵심부품 등의 유망상품에 대한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총 7조 2,421억원의 매출, 33.3억불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1단계 최종년도인 '12년 4월까지의 당초 성과목표에 무난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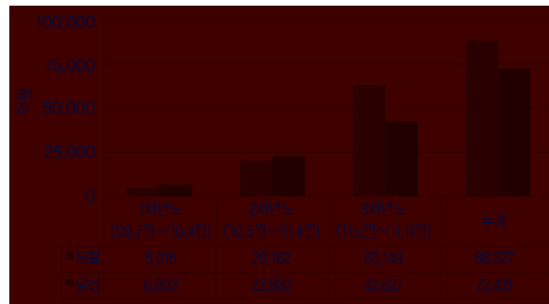
2

2011년 12월,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12~14) 사업(이하,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각 광역경제권에서 합의하여 제출한 22개 선도산업과 40개 프로젝트를 최종 확정하였다. 권역별로는 (충청권) 태양광부품, (호남권) 친환경 차량·부품, (대경권) 스마트모바일, (동남권) 그린선박조선기자재, (강원권) 전자의료기기, (제주권) 제주형 품격서비스 등 총 40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여 광역단위 산업클러스터를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에 500여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2,850억원을 투입하고, '14년까지 약 1,500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25,000명의 신규고용 창출과 약 10조원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지원과제 선정을 위해 '광역발전위원회' 등 지역주도로 2단계 사업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11.12.~

▶ 선도산업의 매출액



12.2.)하였다. 기획 과정에서는 KIAT가 중심이 되어 중앙차원의 기술 컨설팅 지원을 통해 국가 R&D 정책과의 정합성, 중복성 등을 점검하는 자문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중앙에서 추천한 기술전문가들이 권역별 기술기획위원회에도 참여하여 프로젝트별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한 바 있다.

권역별로 제출된 프로젝트 기획 결과에 대해서 '12년 2월 21~24일간 개최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별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고, 지역산업지원소 위원회(3.12)에서 권역별·프로젝트별 지원예산 규모를 최종 확정하였다. '12년 4월까지 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절차를 마무리하여 5월부터는 2단계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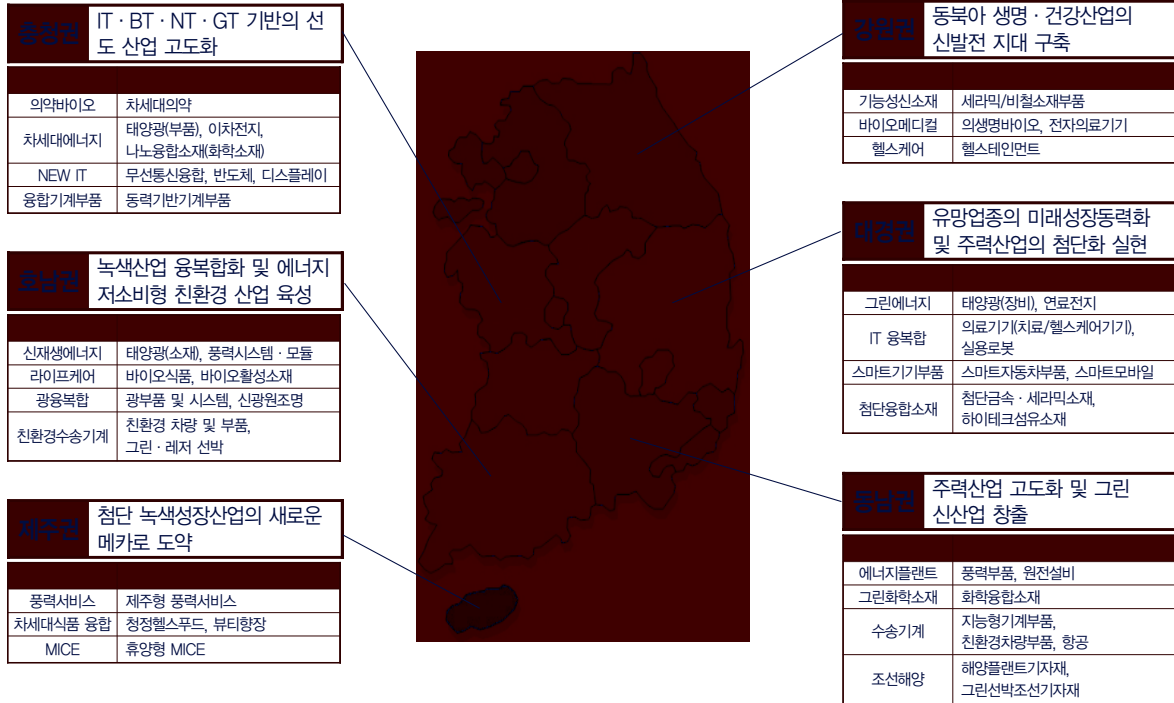
한편, 지식경제부는 2단계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세부 프로그램을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광역규모의 산업생태계 조성³⁾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세부 개편내용으로는,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중소·중견기업의 지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사업부터는 전체 R&D 사업을 고용창출형 R&D로 전면 전환하여 R&D 사업 주관·참여 기관에게 신규 인력 채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고용성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기업별 지원 예산에 차등 반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게 된다. 한편,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채용조건부 R&D를 전체 R&D사업의 10%

2) 호남권(3,619명), 충청권(2,935명), 동남권(2,970명), 대경권(3,211명), 강원권(1,417명), 제주권(249명)

3) 시·도 경계를 넘어 기업지원기관-기업-대학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소재-부품-완성품(시스템) 등 Value chain간의 연계협력을 촉진

▶ 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산업



규모로 시범 도입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기업이 전문학사 및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인력을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연봉의 60% 이내, 최대 100만원/월)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현장 기술인력 채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둘째, 광역경제권 차원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기업 단독 또는 기업-기업간 추진하는 R&D보다는 광역권내에서 지역기업-대학-기술혁신지원기관간의 산·학·연 공동 R&D,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R&D 등을 우선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업 참여조건을 대형과제의 경우 1단계 사업에서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반면, 2단계 사업에서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

폭 완화하여 지역 중소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⁴⁾) 지원사업과 긴밀히 연계하여 산학협력선도대학이 권역내 지역기업에 대해 우수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대학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지원단-지역기업-선도대학간 '산학협력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권역별·프로젝트별 사업 추진성과를 매년 중간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30~40% 범위 내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상호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부터는 연차별 평가에서 하위 10% 정도의 강제 탈락시키는 제도를 규정화하여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

4)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